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교회군대 [느헤미야 4:1-14]

설교자: 앤드류 드 브리스 (Andrew de Vries)

1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2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의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필역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3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4 우리 하나님이며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노략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5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 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7 산발랏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13 내가 성 뒤 낮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1, 교회군대가 조롱으로 공격받다

산발랏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합니다. 그는 상대방의 약점을 부각시킴으로 공격합니다. 도비야는 오늘 설교본문 3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재건한 성벽엔 여우처럼 가벼운 동물이 올라갈 지라도 무너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교회를 향한 모욕과 조롱 그리고 이것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공격들은 오늘날 사탄이 구사하는 주된 공격 중 하나입니다. 이런 공격들은 대학교 교수를 통해, 넷플릭스를 통해, 코미디를 통해 직장동료들을 통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교회 사람들)는 연약하여 자기 스스로 생각하지 못하며 우리의 관점들은 오래된 관습을 쫓는 것이며 세상을 향해 아무것도 제공할 수 없다는 평판을 받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조롱받음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낙담 받게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공격을 대항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이런 문제를 하나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던 일을 다시 묵묵히 해 나갔습니다. *6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느헤미야 4:6). 묵묵히 일하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조롱받을 때 취해야 할 자세입니다.

2, 교회군대가 협박과 위협으로 공격받다

예루살렘은 온 사방에 적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성벽 건축자들을 위협한 적들은 무장한 군인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8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느헤미야 4:8). 이런 종류의 위협들은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그들의 삶을 서로 나누는 것을 못하게 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사업체에 들어가는 전기 공급을 중단한다거나 여러분이 대학교과정 수수료증 발급을 거부한다거나 여러분의 전공 면허증을 취소해 버린다면 그들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회의 사역들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이런

적들의 공격에 침묵하고 계시겠습니까?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공격을 대항해 기도하고 파숫군을 세웠습니다. *9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숫군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느헤미야 4:9). 협박과 위협받을 때 우리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합니다.

3, 교회군대가 낙담시키는 말들로 공격받다

모든 공격들 중에 가장 최악의 공격은 아마도 낙담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통해 영향을 받습니다.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11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륙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 4:10-12). 이런 종류의 공격을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 내부에서 옵니다. 다른 믿는 자들은 여러분을 낙담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낙담들은 사역자들이 일을 끝내지 못하도록 약화시키고 *10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흠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부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느헤미야 4:10). 건축자들이 그들의 일을 포기하고 각자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 자기 자신의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12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열 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느헤미야 4:12). 사탄은 우리들에게 낙담의 말들을 속삭이는 것을 기뻐합니다. 우리는 결코 변할 수 없을거나 말하고 우리의 노력들은 쓸모없다고 말함으로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도록 합니다. 느헤미야는 몇 가지 놀라운 격려들을 해줌으로 우리가 이런 공격을 받는 중에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합니다. 그는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을 격려합니다. a) 그는 다음 세대를 위해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 4:14). 이 싸움은 단순히 우리 자신의 믿음을 위한 싸움이 아닙니다. 이것은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한 싸움입니다. 우리는 신실하게 증인의 길을 걷고 교회를 섬겨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다음세대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데까지 자라나길 원하기 때문입니다. b)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시므로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라고 말합니다.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느헤미야 4:14).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분이심을 기억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분의 힘은 우리를 대적하여 둘러싸고 있는 어떤 적들의 힘들보다 강합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의 강력한 힘이 죄와 죽음과 사탄의 권세를 굴복시킨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분은 그 분께 질문을 더지는 자들로부터, 그 분의 부모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그 분을 미쳤다고 말하는 자들로부터 조롱받으셨습니다. 하지만 그 분께서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 이어가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자신을 위협하고 종국엔 자신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갈 종교지도자들과 정치지도자들에게 위협을 당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런 유협조차도 그 분의 사명을 감당치 못하게 만들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모든 친구들로부터 오는 낙담을 마주쳐야만 했고 십자가에 오르셨을 때 어떠한 위로나 공감을 받지 못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들도 예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 계속해나가는 것과 위대한 승리를 얻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만약 그 분께서 우리 편에서 계시다면 그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계속해서 싸워나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시기 때문입니다.